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 서지의 역사 계량서지학적 분석: 멀리서 읽기를 통한 번역사 연구*

A Historical Bibliometric Analysis of Bibliographies of Translated German Literature in Korean: A Distant Reading Approach to Translation History

이재윤 (Jae Yun Lee)**

박지영 (Ziyoung Park)***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일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 동향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번역사 연구가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 연구는 빈도 분석, 추세 변곡점 분석, 번역대상 저자 다양성 분석, 번역 h-지수, 번역 성장지수 등 다양한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주요 경향과 변화 추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전쟁 이후 번역이 본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번역대상 작가의 구성 측면에서는 2000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작가 집단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은 198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번역 횟수와 번역 h-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문학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와 헤르만 헤세였다. 또한 번역 성장지수와 번역 횟수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작품이 번역된 작가 외에 최근 들어 번역이 활발해진 작가 유형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식은 '멀리서 읽기'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번역의 변화 양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성립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번역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lation trends in German literary works translated into Korean by applying bibliometric methods to data from the Bibliographic Database of German Literary Transla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employs various bibliometric technique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trend inflection point analysis, source author (original work author) diversity analysis, translation h-index, and translation growth index, to systematically examine major tendencies and shifts in transl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ranslations increased steadily after the Korean War but experienced a temporary stagnation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A major shift in translated authors occurred around 2000, while author diversity has declined since the 1980s. Franz Kafka and Hermann Hesse were the most influential German literary figures in Korea based on translation frequency and h-index. Additionally, the translation growth index and the number of translations identified not only authors whose works have been consistently translated but also those who have gained momentum in recent years. This bibliometric approach aligns with the concept of "distant reading," contributing to a macro-level perspective on translation dynamics.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pening new horizons for future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키워드: 번역사, 계량서지학, 역사 계량서지학, 번역, 수용사, 독일문학, 멀리서 읽기

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 historical bibliometrics, translation, reception history, German literature, distant reading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 명지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memexlee@mju.ac.kr) (제1저자)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문화트랙 교수(zgpark@hansung.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5년 2월 24일 ■ 초심심사일자: 2025년 3월 4일 ■ 게재확정일자: 2025년 3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42(1), 351-374,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1.351>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은 20세기 초에 출판물이나 장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인용색인이 개발되고 다양한 인용분석 기법이 고안된 이후에는 인용을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평가 계량서지학(evaluative bibliometrics) (Narin, 1976)이 계량서지학의 주요 세부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Van Leeuwen, 2004). 21세기에 들어 연구성과의 양적 평가가 더욱 중시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과학계량학(scientometrics)이 계량서지학 못지않게 주목받게 되었다. Hérubel(1999)은 전통적인 계량서지학의 적용 대상을 문화사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역사 계량서지학(historical bibliometrics)’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역사 계량서지학은 출판물에 내재된 특성을 밝혀 내어, 지식사, 문화사, 인쇄문화사, 과학사 등 다양한 역사 연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연관 지어 조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역사 계량서지학이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분야 중 하나가 번역사(translation history) 혹은 수용사(reception history)이다. 흔히 수용사는 번역의 수용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문화요소가 수용된 역사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번역사’로 표기하기로 한다. 문학 번역은 문화 간 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정 언어로 된 문학이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때, 번역사 연구는 번역 현상이나 번역물 자체보다 번역을 생산한 사회·문화적 배경(번역가 포함)과 번역

이 당대와 후대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김정우, 2005). 따라서 번역사 연구는 양적 분석보다는 주로 질적 분석 방법론을 채택해왔다.

한편, 번역사 연구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번역고증학(translation archaeology), 번역 결과물을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 주관적 관점에서 특정 번역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explanation)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Pym, 1998). 특히, 이 중 기초 자료의 수집과 역사적 관점의 평가 영역은 양적 분석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Park (1993)이 30여년 전에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 서지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문학비평 분야에서도 양적 분석 방법론이 수용되면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Moretti, 2000)와 같은 사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번역사 연구에서도 양적 분석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Burrows & Falk(2022)는 역사 계량서지학을 말뚝치언어학, 담화분석, 빅데이터분석과 결합하면, 문학 텍스트 및 논픽션 작품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개념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문학(유건수 외, 2023; 전기화 외, 2023; 최은경, 2024), 중국 문학(Zhou & Sun, 2016), 체코 문학(Vimr, 2024), 북유럽 범죄소설(Berglund et al., 2024) 등 여러 언어권의 번역사 연구에 양적 분석기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 계량서지학 방법론을 번역사 연구에 적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포괄하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이에 이러한 연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번역사 계량서지학(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연구들이 사용한 기법을 계량서지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기초적인 빈도 분석과 추이 분석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최은경(2024)은 공동번역자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했으나, 공동저술에 비해 공동번역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 연구는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 서지데이터(이하, 독일문학 번역서지)를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의 경향성과 그 관계를 정량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계량서지학 분야의 여러 기법을 번역서지 분석에 응용하여 기존의 번역사 계량서지학 연구가 단순한 빈도분석 위주의 접근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출판된 독일문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도별/작가별 번역 동향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번역 횟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활발하게 번역되어 국내 독일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구성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구체적으로는 번역대상 작가가 크게 달라진 전환점은 언제이며, 시기별 대표 작가가 누구인지, 시기별로 번역되는 작가의 다양성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번역 동향을 기준으로 작가는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는 번역 동향

을 근거로 꾸준히 번역되는 작가,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 예전에는 작품이 활발히 번역되었으나 최근에는 감소한 작가와 같은 유형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분석 중심의 기존의 번역사 연구와 달리, 계량서지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번역서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의 동향(trends)과 추세(patterns)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h-지수, 다양성 지수, 성장지수 등 다양한 계량서지학적 방법으로 번역된 작품과 해당 작가의 번역 경향을 평가하고 유형화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번역의 영향과 문화적 수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판 기록이 아니라, 서지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번역서지 데이터가 필수적이다(Zhou & Sun,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서 구축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는 번역서가 아닌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구축된 번역서지이며, 독일문학 전문가와 서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다년간에 걸쳐 구축 및 품질 관리가 진행되었다.

이후 2장에서는 역사 계량서지학과 멀리서 읽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룬 후,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데이터인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세 가지 연구질문에 따른 분석 결과를 4.1절에서 4.3절까지 각각 소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정립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역사 계량서지학

‘역사 계량서지학(Historical Bibliometrics)’은 Hérubel(1999)이 제안한 개념으로, 그는 이를 시간과 공간의 프레임에서 출판된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을 대상으로 한 계량서지학적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역사 계량서지학이 인쇄문화사뿐만 아니라 지성사와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와 사서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넓게 보면, 문학 및 비문학 작품 연구에서 서지데이터에 양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모두 역사 계량서지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는 말뭉치언어학이나 담화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언어학 연구방법과 함께 역사 계량서지학이 디지털인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Burrows & Falk, 2022).

역사 계량서지학에 해당하는 연구 사례들은 ‘역사 계량서지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연구로는 글로벌 역사 계량서지학 프로젝트(Global Historical Bibliometrics Project)가 있다. 이는 필사본과 인쇄물의 과거 및 현재 재고와 생산 데이터를 종합한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Global Historical Bibliometrics Project, (n.d.)).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Buringh & van Zanden (n.d.)은 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서양에서 생산·소비된 서적의 장기적인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출판 문화의 발전과 지식 확산 과정을 규명했다. Tejasen(2016)과 Pölönen &

Hammarfelt(2020)는 역사 계량서지학이라는 표현을 논문 제목에 사용하였다. Tejasen(2016)은 *Journal of the Siam Society*에 게재된 논문의 서지 데이터와 편집장에 대한 개인 기록을 결합하여 해당 학술지의 역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Pölönen & Hammarfelt(2020)는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를 활용하여 로마법 연구의 역사적 범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특정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적구조 분석이나 연구동향 분석(김진원, 이한슬, 2024; 이지원, 이성숙, 2024)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다.

역사 계량서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으나 단행본의 서지 데이터를 대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계량서지적 분석을 수행한 사례도 여러 건이 발표되었다. Lahti et al.(2019)은 데이터 품질이나 데이터 정련과 같은 데이터과학의 접근방식을 서지데이터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서지데이터과학(bibliographic data scie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16세부터 18세기까지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의 국가 서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근대 초기 유럽의 출판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국가·언어·주제별 출판량, 판형과 쪽수 등 출판물의 물리적 특성 변화, 출판장소의 변화, 작가 및 출판사 네트워크, 서지데이터의 품질 등을 분석하였다.

Bode(2012)는 호주의 문학 서지데이터베이스인 AustLit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9~20세기 호주의 문학 출판 역사에 대한 계량분석을 수행했다. 그는 출판사, 장르, 작가, 성별 등의 범주를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호주 소설사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또한, 출판사

의 국적별 소설 출간 건수와 규모별 점유율 분석 등을 통해서 호주 문학 출판 시장에서 자국 출판사의 쇠퇴와 중소형 출판사의 비중 증가를 밝혀냈다. 그리고 계몽주의 유럽의 프랑스 서적 유통 프로젝트(The French Book Trade in Enlightenment Europe)에서는 1769년부터 1794년까지 스위스의 출판사이자 도매상인 La Société typographique de Neuchâtel(STN)에 보관된 계몽주의 후기 유럽 전역의 프랑스 서적 거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더불어 2012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베스트셀러 텍스트와 저자, 유럽 전역의 독서 취향, 시간에 따른 수요 패턴의 변화, 인쇄 무역의 교환 네트워크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제공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18세기 후반의 출판과 인쇄, 독서 문화를 재해석하는 연구성과(Burrows, 2021; Curran, 2018)도 꾸준히 발표하였다.

2.2 멀리서 읽기

2.2.1 멀리서 읽기의 개념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는 Moretti(2000)가 ‘텍스트에서 멀리 떨어져 전체를 조망하는 독서 행위’라는 의미로 제안한 용어이다. 그는 다양한 언어로 된 무수한 문학작품을 모두 읽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문학 연구의 고유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꼼꼼히 읽기’가 아니라 텍스트를 ‘읽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텍스트 자체보다 장치, 주제, 비유 또는 장르와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을 해결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Leonov(2019; 2021)는 두 편의 논문에서, 문학 연구에서 최초로 정량적 방법을 도입하고, 문학 텍스트의 생존과 생물학적 과정 간의 공통점을 발견한 인물로 『문학의 정확한 연구 방법론(Methodology of an Exact Study of Literature)』의 저자인 B. I. Yarkho(1889-1942)를 지목하며, 그를 Moretti의 선행 연구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문학 텍스트 분석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곧 ‘멀리서 읽기’로 간주되는 경우(윤서영, 2023)가 많아졌다.

국내에서는 Moretti(2014)의 논문이 2014년에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한국영어영문학회 발행)에 게재된 후, 멀리서 읽기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멀리서 읽기를 표방한 연구는 문학(김용수, 2019), 문학사회학(이재연, 정유경, 2020), 역사학(Salmi, 2021/2024) 등 디지털인문학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용수(2019)는 국내 국문학계와 영문학계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멀리서 읽기 사례를 찾아서 조명하였다. 이재연, 정유경(2020)은 문학사회학 분야의 멀리서 읽기 연구 사례를 살펴본 후, 식민지 시기의 잡지글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검열의 흔적을 분석하였다. Salmi(2021/2024)는 역사 텍스트를 대상으로 멀리서 읽기의 관점을 적용하여 역사의 지도화와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2.2.2 문학작품 번역서의 멀리서 읽기

멀리서 읽기는 개별 문학 작품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학적 흐름과 패턴을 파악하는 접근법이므로 문학번역에 대한 역사, 즉 번역사 연구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Zhou와 Sun(2016)은 ‘번역사에 대한 양적 연구(quantitative studies related to translation history)’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문학의 영어 번역서지를 대상으로 계량분석 연구를 시도했다. 이들은 번역사를 양적연구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조화 수준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서지데이터가 이상적임을 강조하며, 서지데이터를 검색·분석·시각화하는 기법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에 한국문학의 번역 서지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동향을 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현대문학 작품(유건수 외, 2023)과 고전문학 작품(전기화 외, 2023)에 대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기별 발간량 추이, 장르별·작가별 번역 추이, 성별 추이 등 비교적 단순한 발간량 추이 분석에 그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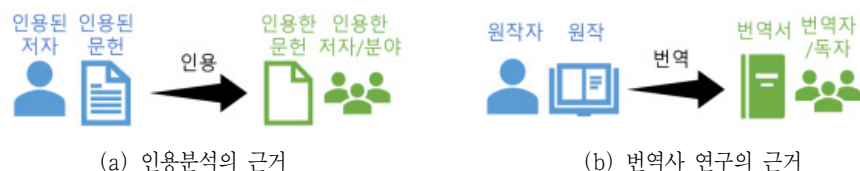
한편, Vimr(2024)는 서지데이터과학과 번역사 연구를 결합하여, 냉전 시대 체코 문학의 해외 번역 보급과정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는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와 LRM(Library Reference Model)을 참고하여, OCLC WorldCat에서 추출한 서지데이터를 번역 연구에 적합하도록 정련하고 정

합성을 검증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리를 거친 번역서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정학적 급변에 따른 영향으로 냉전 시기와 소련 붕괴 이후의 번역 동향이 역동적으로 변화했음이 드러났다. Vimr(2024)의 서지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Tolonen et al.(2023)이 서지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로 전환하는 절차로 정의한 ‘서지데이터과학’ 접근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Berglund et al.(2024)은 북유럽 지역의 범죄 소설을 지칭하는 ‘노르딕 느와르’가 세계문학으로서 타 언어로 번역된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덴마크어,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등 5개 주요 노르딕 언어로 출판된 범죄 소설 8,886건을 포함하는 ‘노르딕 느와르 번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번역 흐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K-팝이나 K-컬처를 포함한 한류의 세계적 확산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홍석경 외, 2019; Lee & Lee, 2022)와 유사한 관점의 연구이다.

2.3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가능성

계량서지학의 주요 단서인 ‘인용’은 ‘인용된 저자나 문헌이 인용한 저자나 문헌, 학문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을 갖는다. 여기서 ‘인용’을 ‘번역’으로 치환하면, <그림 1>과 같이 ‘번역



<그림 1> 인용분석의 근거와 번역사 연구의 근거

된 작품의 원작자나 원작이 번역된 언어문화권에 영향을 끼친다'는 번역사의 관점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치환을 시도하여 인용에 적용해오던 다양한 계량서지학 기법을 번역에 응용하는 번역사 계량서지학(translation history bibliometrics)'의 가능성을 제고해보고자 한다.

즉, 번역사 계량서지학은 계량서지학의 다양한 기법을 차용하여 문학 작품이 번역·소개된 언어문화권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 양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분야로 규정할 수 있다. 분석의 단서는 작가나 번역자(who), 작품(what), 시기(when), 성향이나 방식(how)이 될 수 있으며,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다양성 분석, 군집분석, 네트워크 분석, 인용지표 등 계량서지학의 여러 기법과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문학작품 번역서의 멀리서 읽기 사례들은 모두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번역사 계량서지학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번역서에 대한 서지데이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번역서지는 특정 문학작품이 다른 언어문화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Zhou와 Sun(2016, 98)은 “정량적 방법은 번역사의 패턴과 규칙성을 탐지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계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정량적 방법은 번역사 연구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구축된 번역서지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 연구 데이터와 분석 방법

3.1 연구 데이터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구축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서지 데이터는 번역서(book)가 아닌 번역작품(work)을 기본 단위로 구축되었기 때문에(Park & Kim, 2021), 번역서 표제와 같은 통제되지 않은 키워드 매칭이 아닌 작품ID 기반의 개체 식별 및 분석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 번역서지 연구팀은 원문을 확보한 뒤, 기초 서지데이터와 대조하여 물리적 단위에 수록된 개별 작품을 하나씩 식별하고, 이를 모두 개별화하여 번역서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Tolonen et al.(2023)과 Vimr(2024)은 도서관 서지 정보를 분석가능한 연구 데이터로 정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서지데이터 과학 접근 방식으로 명명한 바 있다. 특히 이 번역서지 데이터는 기계적 필터링이나 유효성 검사 외에도 여러 전문가의 직접적인 원문확인, 개별 작품 식별, 부가적인 데이터 구축과 검수 과정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24). 구축된 번역서지 데이터의 일부는 <그림 2>와 같이 위키미디어 플랫폼인 '위데코(UeDeKo)'를 통해 웹서비스 중이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96명의 독일문학 작가에 대한 800여개 작품의 번역서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권선형, 박지영, 2024).

이 연구에서는 연구소에서 구축한 번역서지 데이터 중에서 작품정보, 개별번역정보, 번역서정보, 저자정보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2024년 7월 28일까지 구축된 데이터를 반출하

작품 중 h 회 이상 번역된 작품이 h 개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번역 h -지수는 <그림 3>과 같이 번역 횟수가 순위보다 크거나 같은 마지막 순위인 7이 된다. 첫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4.1절에 제시하였다.

작품	번역 횟수	내림 차순
서툼짜리 오페라	14	1
역적어머과 그의 자식들	11	2
헐리우드 비가	9	3
위대한 감사의 송가	8	4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8	5
세상의 친절함에 대하여	7	6
마리 A의 추억	7	7
불쌍한 B. B.	7	8
노자가 떠나던 길에 도덕경을 써주게 된 전설	7	9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	7	10

번역 $h = 7$

<그림 3>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번역 h -지수 산출과정

둘째, 시기별로 작가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 추세 변곡점 분석, 구간별 각 작가의 번역 횟수 집계, 엔트로피 공식을 통한 다양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추세 변곡점 분석은 특정 시점 전후의 저자별 번역 횟수 상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원래 학술논문의 저자집단변화 추세 분석(유영준, 이재운, 2016)을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대상 작가가 크게 달라진 시기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번역이 활발했던 작가의 번역 횟수가 급감하거나, 반대로 거의 번역되지 않던 작가의 번역 횟수가 해당 시점 이후에 급증했다면, 전후 시기 사이의 상관도가 낮아지는데, 이 시기를 추세 변곡점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분석 구간은 5년과 10년 단위

로 설정하여 비교한 후, 번역대상 작가들이 크게 달라진 변곡점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10년 단위를 최종 집계 범위로 채택하였다. 구간별 각 작가의 번역 횟수를 집계할 때에는 10년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구간에서 1위인 작가를 대표 작가로, 3위 이내에 포함된 작가들을 주요 작가로 판단하여 장기적인 번역 횟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작품이 번역된 작가의 다양성은 엔트로피 공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기별로 작가별 번역 횟수를 집계한 후, 시기별 전체 번역 횟수 대비 작가별 번역 횟수 비중을 산출하여 해당 시기의 다양성을 엔트로피 공식으로 측정하였다. 엔트로피로 측정된 작가의 다양성은 번역된 작가가 1명 뿐일 경우에 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며, 특정 시기에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고르게 번역될수록 값이 높아진다. 둘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4.2절에 제시하였다.

셋째, 번역 동향을 기준으로 작가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총 번역 횟수와 번역 성장지수를 활용하였다. 번역 성장지수는 이재운 외(2011)에서 개발한 성장지수 공식을 응용하여 계산하였다. 매년 번역작품이 출판되기 시작한 1952년부터 2023년까지 작가별 번역 횟수의 증가 추세를 성장지수(이재운 외, 2011)를 응용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측정하였다. 번역 성장지수는 72년의 기간 중에서 번역이 초기에 집중될수록 0에 가깝게 낮아지고, 최근 시기에 주로 집중될수록 1에 가깝게 높아진다.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번역되거나 중간 시기에 번역이 집중된 경우에는 0.5에 가까운 값이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번역 성장지수를 세로축으로, 총 번역 횟수를 가로축으로 설정하여 개별

작가의 위치를 나타낸 후, 꾸준히 번역되는 작가 유형,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 유형, 예전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주춤한 작가 유형을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4.3절에 제시하였다.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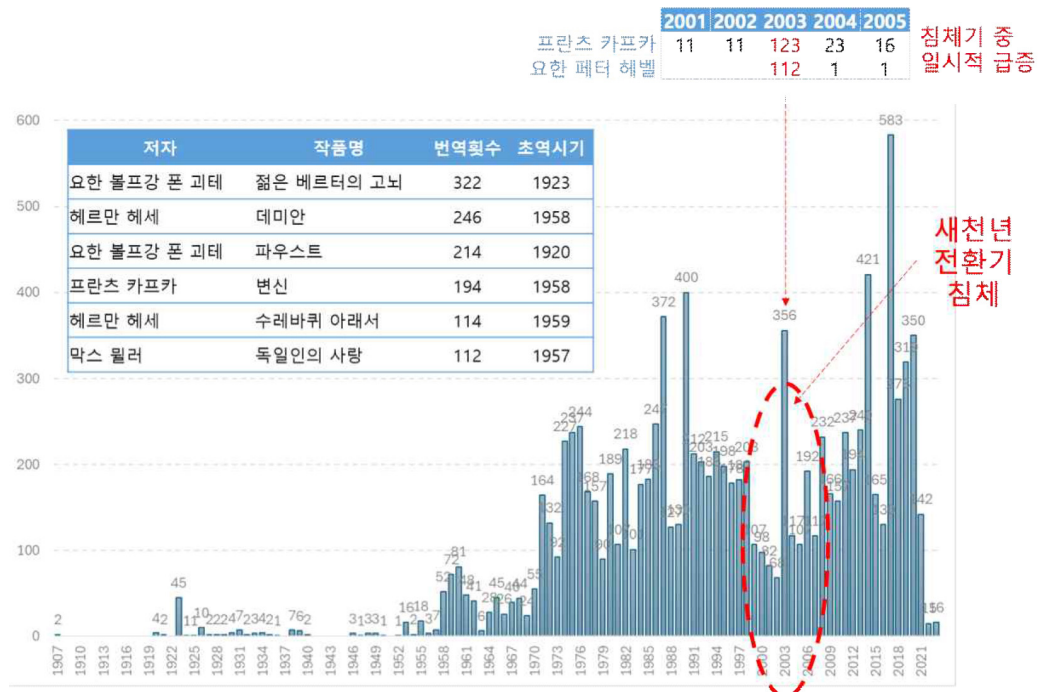
4.1 번역 횟수 및 작가별 번역 영향력 분석

4.1.1 작품별 · 시기별 번역 횟수

1907년 박은식의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연도별 번역 건수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초반 이후에야 독일 문학 작품이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은 번역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시기로, 세기말 전환기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프란츠 카프카와 요한 페터 헤벨의 전집 출간 등의 영향으로 번역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을 뿐이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세기말 전환기에 독일문학 번역 출판이 침체된 현상에 대해서 독일문학 번역 비평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논의하였으나 명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다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일 수도 있다는 추측만 제기되었다.

한편,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 중에서 100회 이상 번역된 6개 작품은 <그림 4>의 상



<그림 4> 연도별 독일문학 번역 횟수(190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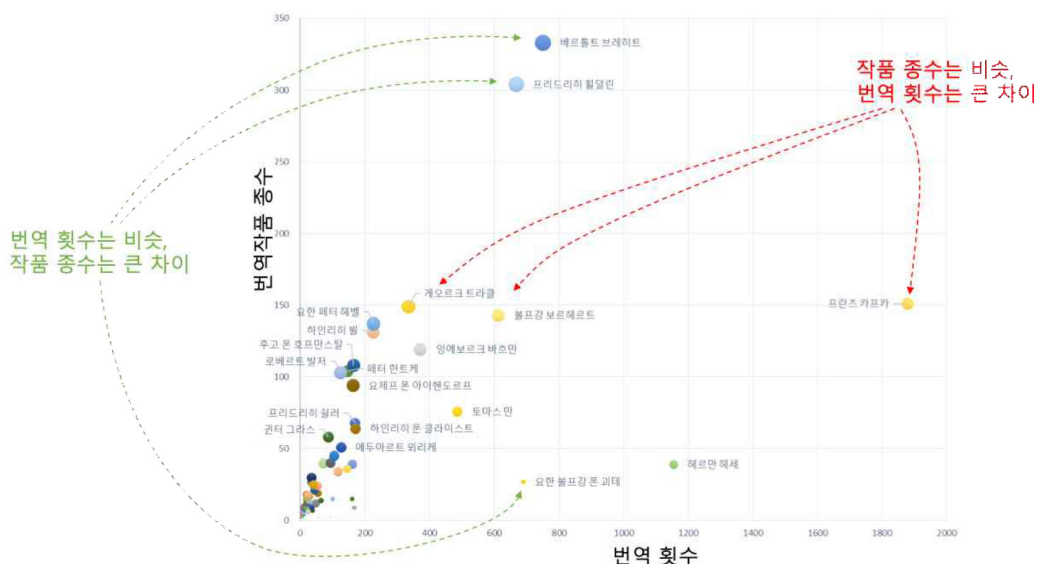
자 목록에 제시하였다. 6개 작품의 번역 횟수 합계는 1,202회로서 전체 번역출판횟수의 11%를 차지하였다. 독일문학 번역서 10권 중 한 권 이상이 이 6편의 작품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수의 작품에 번역 횟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로, 1923년에 초역된 이후 총 322회 번역·출판되었다.

4.1.2 작가별 작품 번역 영향력

작가별 작품의 총 번역 횟수와 번역된 작품 종수를 통해, 각 작가의 작품이 국내 독일문학 독자와 연구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번역 횟수가 비슷한 작가라도 번역된 작품 종수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번역된 작품 종수가 비슷하더라도 번역 횟수는 상

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1>을 보면, 프란츠 카프카와 게오르크 트라클의 번역대상 작품 수는 각각 151종과 149종으로 거의 같지만, 번역 횟수는 각각 1,879회와 335회로 프란츠 카프카가 게오르크 트라클의 5.6배에 이른다. 반대의 경우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프리드리히 뢰들린의 번역 횟수는 각각 690회와 668회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번역대상 작품 수는 괴테가 27종, 뢰들린이 304종이므로 괴테가 뢰들린의 1/11 수준에 불과하다.

<표 1>에서 작가별 번역 횟수를 상위 10위까지 살펴보면, 1위는 프란츠 카프카, 2위는 헤르만 헤세이다. 그런데 번역된 작품 종수 1위는 프란츠 카프카가 아닌 베르톨트 브레히트로, 333종의 작품이 총 750회 번역되었다. 헤르만 헤세는 번역된 작품의 종수는 적지만, 한 작품당 평균 29.6회 번역된 반면,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한 작품당 평균 2.3회 번역되는데 그쳤다.



<그림 5> 작가별 작품 번역 횟수와 번역된 작품 종수의 분포

〈표 1〉 독일문학 작품 번역 횟수 상위 작가(상위 10위)

작가	번역 횟수 (순위)	번역 작품 종수	작품당 평균 번역 횟수	번역 횟수 최댓값	번역 h-지수 (순위)
프란츠 카프카	1879 (1)	151	12.4	194	20 (1)
헤르만 헤세	1154 (2)	39	29.6	246	16 (2)
베르톨트 브레히트	750 (3)	333	2.3	14	7 (7)
요한 볼프강 폰 괴테	690 (4)	27	25.6	322	10 (4)
프리드리히 뢰들린	668 (5)	304	2.2	11	8 (5)
볼프강 보르헤르트	612 (6)	143	4.3	46	6 (10)
토마스 만	486 (7)	76	6.4	51	11 (3)
잉에보르크 바흐만	371 (8)	119	3.1	9	7 (7)
게오르크 트라클	335 (9)	149	2.2	7	5 (12)
요한 페터 헤벨	226 (10)	137	1.6	8	3 (33)

따라서 번역된 작품 종수와 번역 횟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h-지수를 차용한 번역 h-지수를 측정하여 〈표 2〉에 함께 제시하였다. 번역 h-지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도 1위, 2위는 번역 횟수 기준 1위, 2위와 동일하다. 그러나 번역 횟수 기준 3위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번역 h-지수가 7로 공동 7위에 머물렀고, 번역 횟수 기준 7위인 토마스 만이 번역 h-지수 11로 3위를 차지하였다. 다소 극단적인 사례로, 번역 횟수 10위인 요한 페터 헤벨의 경우는 번역 h-지수가 3으로 33위에 그쳤다. 이처럼 번역 h-지수는 특정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번역되었는지를 반영하므로, 국내 독일문학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작품의 저자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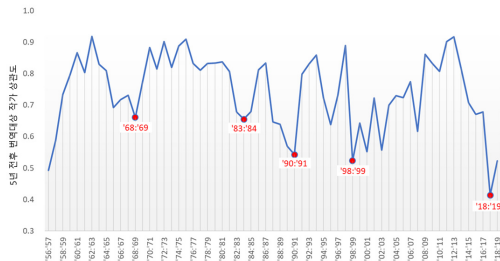
4.2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변화 및 다양성

4.2.1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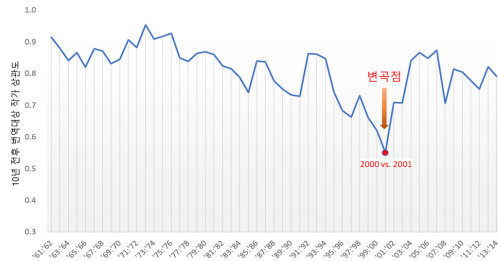
국내에 번역되는 독일문학 작품의 작가는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나 문화 교류의 확대 등

의 원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 매년 독일문학 작품이 번역·출판되기 시작한 1952년부터 2023년까지 72년 동안 번역대상 작가들이 언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년을 단위로 번역대상 작가들을 전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살펴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년 단위로 그 기간 동안의 수치를 통합하여 직전 n년과 이후 n년의 작가별 번역 횟수를 비교하는 구간합계 또는 이동평균 추세 변곡점 분석기법(이재윤, 2023)을 응용했다. 학술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3년 단위(이재윤, 2023) 혹은 5년 단위(유영준, 이재윤, 2016)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문학작품의 번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보다 긴 기간을 집계 범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번역대상 작가의 변화추이 분석은 5년과 10년 단위로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번역대상 작가집단이 직전 5년과 직후 5년 사이에 얼마나 중복되는가를 분석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총 5개의 두드러진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곡점 주변의 추이 변화



〈그림 6〉 5년 전후 번역 대상 작가 상관도 추세



〈그림 7〉 10년 전후 번역 대상 작가 상관도 추세

가 완만하지 않고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 문학 작품의 번역 추이를 보기에는 5년 단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유일하게 전후 작가집단 간의 상관성이 0.5대로 낮아지는 명확한 새천년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시기별로 대표적인 번역대상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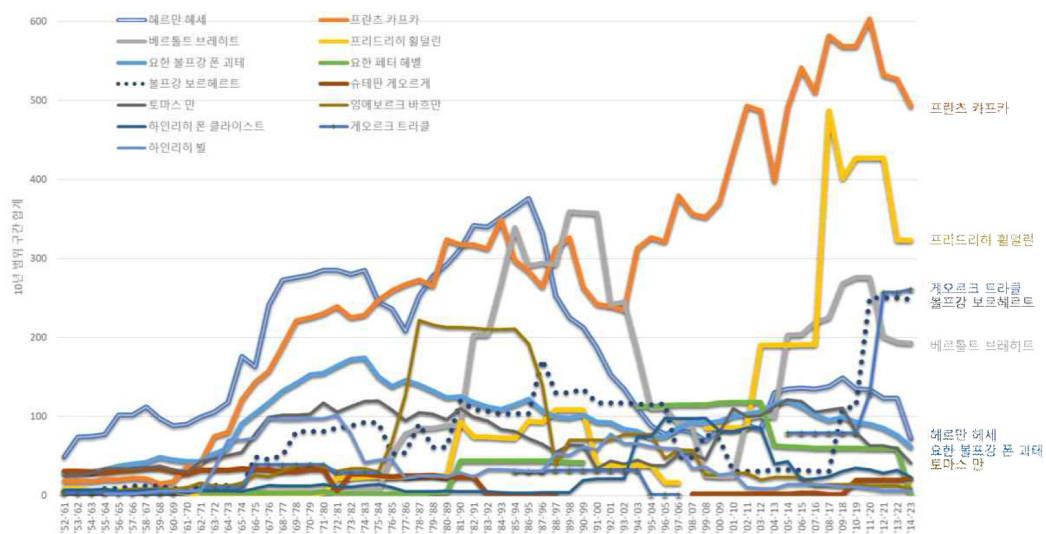
10년 단위로 작가별 번역 횟수를 파악하여 시기별로 대표적인 번역 대상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 첫 구간인 1952-1961년에서 시작하여 1년씩 구간을 이동시키면서 마지막 구간인 2014-2023년까지 총 63개의 구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 구간에서라도 번역 횟수 1위를 차지한 저자는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베르톨트 브레히트로 세 명뿐이었다. 이들은 1950년대 이후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된 대표적인 독일문학 작가가 될 것이다. 헤르만 헤세는 구간별 1위를 차지한 횟수가 30회로 28회인 프란츠 카프카보다 약간 더 많으나, 3위 이내에 포함된 비율은 전체의 68.3%인 43개 구간으로 프란츠 카프카보다 적은 두 번째였다. 구간별 3위 이내에 1회 이상 포함되어 있는 13명의 작가는 한국에 소개

된 주요 독일문학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표 2〉 참조), 프란츠 카프카는 총 63개 구간 중에서 84.1%인 53개 구간에서 3위 이내에 포함되어 가장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3명의 주요 작가가 10년 단위 구간별로 번역된 횟수 합계의 변화 추이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헤르만 헤세가 대부분 1위를 유지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프란츠 카프카와 1, 2위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르만 헤세 작품의 번역이 주춤하게 된 1990년대에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저작들이 급서에서 해제되면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헤르만 헤세와 베르톨트 브레히트 작품의 번역이 급감한 반면, 프란츠 카프카 작품의 번역은 증가하여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태생이지만 대부분의 작품을 독일어로 창작하였다. 국내에서 그의 작품은 2010년대에 약 600회, 즉 연간 60회 가깝게 꾸준히 번역·출판되며, 독일문학 작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에는 프리드리히 뢰들린 작품의 번역 횟수가 프란츠 카프카에 이어 2위

〈표 2〉 구간별 번역 횟수 3위 이내에 한 번이라도 포함된 주요 작가 13명

작가	구간별 상위권에 포함된 횟수				전체 구간 중 3위 이내에 포함된 구간 비율
	1위	2위	3위	합계	
헤르만 헤세	30	6	7	43	68.3%
프란츠 카프카	28	21	4	53	84.1%
베르톨트 브레히트	5	8	5	18	28.6%
프리드리히 뢰들린		9	3	12	19.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8	21	29	46.0%
요한 페터 헤벨		6	3	9	14.3%
볼프강 보르헤르트		2	1	3	4.8%
슈테판 게오르게		2		2	3.2%
토마스 만		1	6	7	11.1%
잉에보르크 바흐만			6	6	9.5%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3	3	4.8%
게오르크 트라클			3	3	4.8%
하인리히 뢰			1	1	1.6%



〈그림 8〉 주요 작가 13명의 10년 단위 번역 횟수 변화 추이

로 부상하였다. 이는 분석에 활용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가 개별 작품을 기본 단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정 시인인 그의 시 작품의 종수가 소설 작품의 종수 보다 번역 횟수 면에

서 상위권에 포함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작품의 계량분석에서는 작품의 장르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문분야별로 논문 편수나 인용횟수가 다른 수준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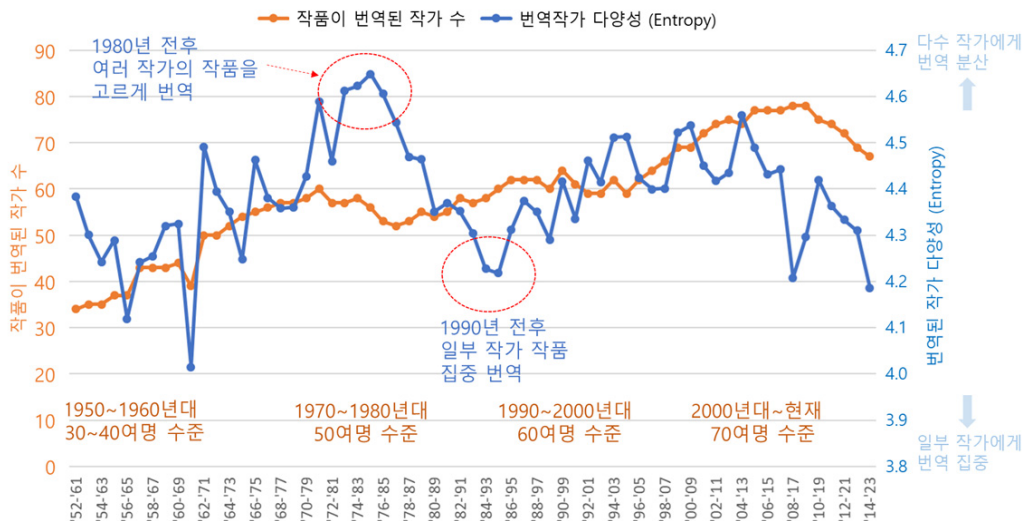
이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4.2.3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

1952년부터 10년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고 1년씩 이동시키면서 시기별 번역작가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9>를 보면, 각 구간별로 작품이 번역된 작가 수와 함께 여러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고르게 번역되었는가를 의미하는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은 10년 단위 구간별로 각 작가의 작품이 번역된 횟수를 모아서 고르게 분산된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양성 공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이재운, 2024), 본 연구에서는 작은 값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간단한 엔트로피(entropy) 공식을 채택하였다. 엔트로피 값은 모든 작가가 동일한 횟수로 번역되었을 때 가장 높고, 한 작가가 모든 번역 횟수를 차지하면 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된다.

<그림 9>에서 작품이 번역된 작가 수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10년 간 30~40명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70명 수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그런데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은 1980년 전후에 가장 높았다가 급감하여 1990년 전후에 가장 낮아졌으며, 이후 2010년 중반까지 약간 회복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번역대상 작가의 다양성이 가장 높았던 1975~1984년 구간에서는 최다 번역 저자 3인의 번역 횟수 비중이 전체 번역의 37.5%를 차지했으나, 1985~1994년 구간에서는 최다 번역 저자 3인의 비중이 전체 번역의 과반을 넘는 50.3%로 상승하여 일부 저자에게 번역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60여년 동안 한 편이라도 작품이 번역된 독일문학 작가의 총 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부 저자의 작품에 번역이 집중되는 현상은 1980년 전후 시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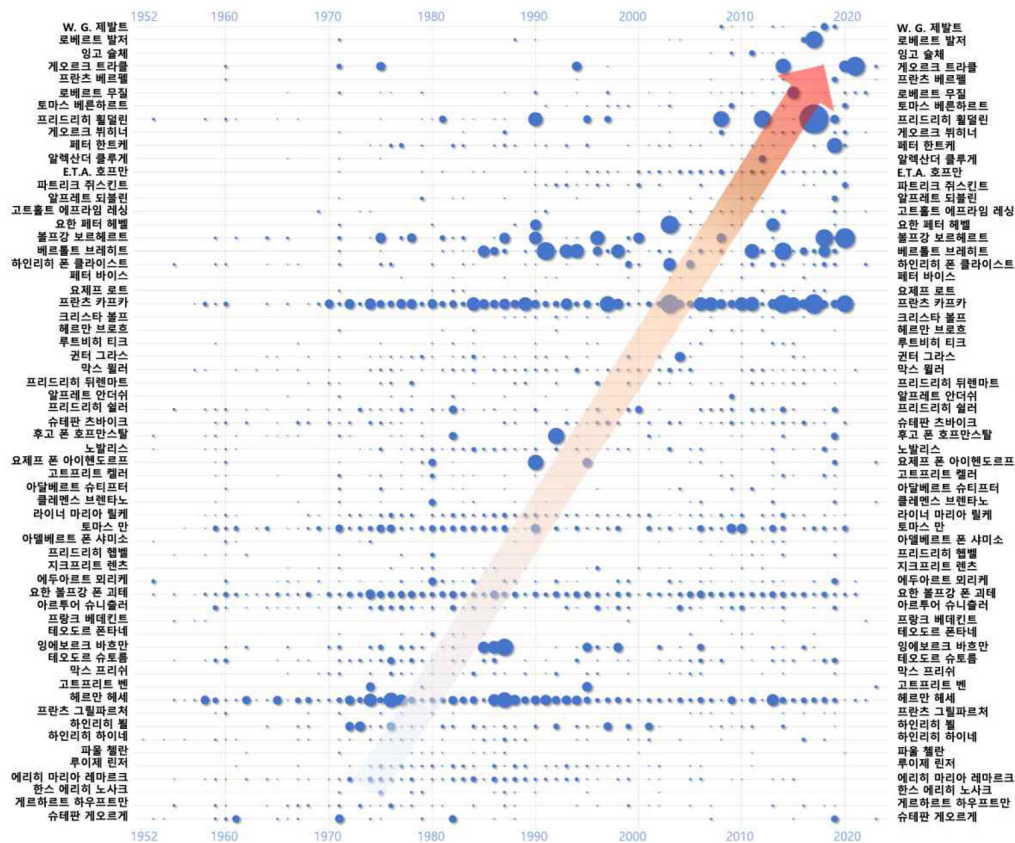
<그림 9>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 수와 다양성(엔트로피) 변화 분석

4.3 번역 동향에 따른 작가 유형 구분

이 절에서는 총 번역 횟수와 주된 번역 시기로 파악되는 번역 동향을 근거로 하여 작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우선 1952년 이후 번역 횟수가 10회 이상인 작가 61명을 대상으로 연도별 번역 횟수를 확인하여 <그림 10>에 나타냈다. 이 그림에서 원의 크기는 해당 연도의 번역 횟수이며, 로베르트 발저(위에서 2번째)나 프리드리히 뢰들린(위에서 8번째)과 같이 작품 번역이 최근에 집중된 작가들을 상단에 배치하

였다. 반면에 루이제 린저(아래에서 5번째)나 헤르만 헤세(아래에서 10번째)와 같이 주로 2000년 이전에 작품이 번역된 작가들은 하단에 배치하였다. 그림에서 화살표는 위로 올라갈수록 각 작가의 주된 번역 시기(번역연도의 평균)가 오른쪽(최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52년부터 2023년까지 작가별 번역 횟수의 증가 추세를 성장지수(이재윤 외, 2011)를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번역 성장지수는 72년의 기간 중에서 번역이 초기에 집중될수록 0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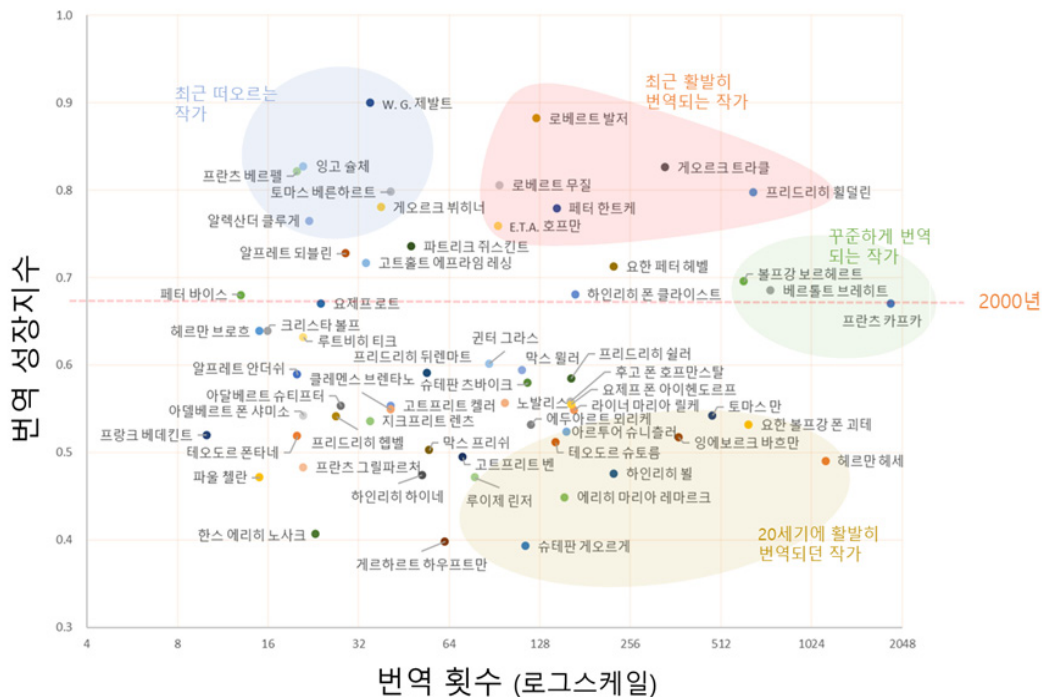


〈그림 10〉 작가의 연도별 번역 횟수 추이
(최근에 주로 번역된 작가를 위쪽에 배치함)

값이 낮아지고, 최근 시기에 주로 집중될수록 1에 가깝게 높아진다.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번역되거나 중간 시기에 번역이 집중된 경우에는 0.5에 가까운 값이 산출된다.

번역대상 저자 61명의 번역 횟수를 가로축으로 하고, 번역 성장지수를 세로축으로 하여 산점도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이 그림에서 ‘2000년’으로 표시된 수평선은 작품 번역 시기의 평균이 2000년인 수준을 나타낸다. 수평선 위쪽에 위치한 작가들의 작품은 2000년 이후에 더 많이 번역되었고, 아래에 위치한 작가의 작품은 2000년 이전에 더 많이 번역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프란츠 카프카를 필두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작가들은 번역 횟수가 매우 많고, 2000년 전후로 꾸준히 번역된 작가들

이다. 이들보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프리드리히 뢰들린이나 로베르트 발저와 같은 작가들은 번역 횟수는 중상위권이지만, 최근에 활발히 번역되고 있는 작가들이다. 그림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W.G. 제발트나 잉고 술체와 같은 작가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점차 번역되기 시작한 작가들이다. 반면에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헤르만 헤세나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같은 작가들은 20세기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21세기에 들어서 번역이 주춤해진 작가들에 해당한다. 이처럼 번역 성장지수와 번역 횟수를 통해서 꾸준히 번역되는 작가,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작가, 예전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주춤한 작가들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1〉 번역 횟수 상위 61명 작가의 번역 횟수와 번역 성장지수

5. 결 론

본 연구는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의 번역 동향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번역사 연구가 질적분석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빈도 분석, 추세 변곡점 분석, 번역대상 저자 다양성 분석, 번역 h-지수 추정, 번역 성장지수 추정 등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과 작가의 주요 번역 동향과 변화 추세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 가지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작가별 번역 동향 분석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독일문학 번역의 변화시기와 번역된 주요 작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독일문학 작품의 번역이 본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시적인 침체기였음이 드러났다. 작가별 번역 동향을 살펴본 결과 프란츠 카프카와 헤르만 헤세가 총 번역 횟수와 번역 h-지수에서 모두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국내 독일문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작가로 나타났다. 번역 h-지수 3위와 4위는 토마스 만과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차지하였다. 번역된 작품 수 기준으로는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1위였지만 작품당 평균 번역 횟수가 낮아서 종합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번역 h-지수는 7위에 그쳤다. 이처럼 번역 h-지수를 통해서 해당 작가의 작품이 국내 독일문학계에서 얼마나 폭넓은 관심을 받았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시기별로 번역되는 작가 구성을 분석해본 결과, 2000년을 변곡점으로 하여 전후 시기 번역대상 작가 집단에 큰 변화가 있음이 드러났다. 2000년 이후 베르톨트 브레히트, 헤르만 헤세, 볼프강 보르헤르트 등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프란츠 카프카, 요한 페터 헤벨, 토마스 만 등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시기별 번역 횟수 1위 작가의 1950년대 이후 헤르만 헤세, 베르톨트 브레히트, 프란츠 카프카 3인만이 차례대로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란츠 카프카는 번역 횟수 3위 이내에 포함된 구간이 전체 분석 기간의 84%가 넘어서 가장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한 대표 작가로 확인되었다. 한편 시기별 번역대상 작가의 수는 1950년대 30명대에서 2000년대 70명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다양성은 1980년 전후에 가장 높았다가 1990년 전후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약간 회복하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품이 번역되는 작가의 수 자체는 증가했으나, 일부 작가의 작품에 번역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작가들의 시기별 번역 동태를 번역 성장지수와 번역 횟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프란츠 카프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번역된 유형, 프리드리히 뢰들린과 로베르트 발저 등과 같이 최근에 번역이 더욱 활발해진 유형, W.G. 제발트나 잉고 슐체와 같이 새롭게 번역되기 시작한 유형, 20세기에 활발히 번역되다가 21세기에 들어 번역이 주춤해진 헤르만 헤세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같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 계량서지학의 분석 기법을 차용하여 개발한 번역 h-지수, 번역 추

세 변곡점 분석 기법, 번역대상 저자의 다양성 측정기법, 번역 성장지수 등은 국내 독일문학 번역출판 동향에 대해서 세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연구에서 양적 분석으로 밝혀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질적 기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첫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에서 번역 횟수의 양적인 침체기가 2000년 전후로 나타났는데, 둘째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에서 번역대상의 질적인 변화도 2000년 전후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70여 년의 기간에 걸친 분석에서 양적 침체기와 질적 변곡점이 일치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졌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전후 문학, 낭만주의 작가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모더니즘과 인간심리의 복잡성 등을 탐구한 작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독일문학 번역출판이 침체된 것이라는 가설도 세워볼 수 있다. 추후 독일문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계량서지학의 다양한 분석 기법을 번역서지 분석에도 적용해봄으로써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정립 가능성을 제고해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번역 h-지수와 번역 성장지수는 특정 작가의 번역 영향력과 번역 동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시기 전후에 번역된 작가 집단이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본 변곡점 분석을 통해 독일문학의 번역 동향이 변화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소설이나 시와 같은 장르별 특성이 번역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빈도 분석을 수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장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번역서지 데이터의 분석에 계량서지학의 일부 기법들을 활용해보았으나, 이 외에도 번역사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량서지학 기법이 남아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번역대상 작가와 번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동시인용이나 서지결합과 같은 기법을 차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문이 발표되는 플랫폼으로서 학술지를 분석하듯이 번역서가 출판되는 플랫폼으로서 출판사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권선형, 박지영 (2024). 독일문학번역 DB 구축과 번역비평. 제4차 인문사회연구소 네트워크 심포지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김용수 (2019). 세계문학과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 한국 학계의 모래티 연구. 비평과이론, 24(3), 59-78.
<http://doi.org/10.19116/theory.2019.24.3.59>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사 논의의 전제. 우리말연구, 16, 139-161.

- 김진원, 이한슬 (2024). 국내 건강정보관련 연구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1), 411-438. <http://doi.org/10.3743/KOSIM.2024.41.1.411>
-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24). 독일문학번역 DB 구축과 번역비평(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 유건수, 김보경, 김지윤, 전세진, 정기인, 정성훈, Seth Chandler (2023). 한국문학 영어번역 양상 멀리서 읽기(1):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4(1), 7-42.
- 유영준, 이재윤 (2016). 칼빈 신학교 학술지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125-14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4.125>
- 윤서영 (2023). 문학 텍스트 다시 읽기, 가까이서 읽기, 멀리서 읽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한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와 『포』(Foe, 1986) 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8, 101-132.
- 이재연, 정유경 (2020). 국문학 내 문학사회학과 멀리서 읽기: 새로운 검열연구를 위한 길마중. 대동문화연구, 111, 295-337. <http://doi.org/10.18219/ddmh..111.202009.295>
- 이재윤 (2006). 연구성과 측정을 위한 h-지수의 개량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3), 167-186. <http://doi.org/10.3743/KOSIM.2006.23.3.167>
- 이재윤 (2023). 저자집단 분석을 통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술커뮤니케이션 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409-434. <http://doi.org/10.4275/KSLIS.2023.57.2.409>
- 이재윤 (2024). KCI 학제간연구 분야 소속 학술지의 다학문성 및 학제성과 인용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4), 47-70. <http://doi.org/10.3743/KOSIM.2024.41.4.047>
- 이재윤, 김관준, 강대신, 김희정, 유소영, 이우형 (2011). 계량서지적 기법을 활용한 LED 핵심 주제영역의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연구, 42(3), 1-26. <http://doi.org/10.1633/JIM.2011.42.3.001>
- 이지원, 이성숙 (2024). 해외 목록학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1), 367-387.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67>
- 전기화, 김지윤, 유건수, 전세진, 정기인, 정성훈, Seth Chandler (2023). 한국문학 영어번역 양상 멀리서 읽기(2):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번역연구, 14, 79-118.
- 최은경 (2024).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번역가 네트워크 연구: 한국문학 영어 번역 공역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177-197. <http://doi.org/10.15749/jts.2024.25.3.007>
- 홍석경, 박소정, 박대민, 오승연 (2019). Geography of Hallyu Studies: Analysis of academic discourse on Hallyu in international research. Korea Journal, 59(2), 111-143. <http://doi.org/10.25024/kj.2019.59.2.111>
- Berglund, K., Gulddal, J., & King, S. (2024). On top of the world: Mapping the Nordic crime fiction boom based on translation data. Translation Studies, 1-22. <http://doi.org/10.1080/14781700.2024.2333737>

- Bode, C. (2012). *Reading By Numbers: Recalibrating the Literary Field*. London: Anthem.
<http://doi.org/10.7135/UPO9780857284563>
- Buringh, E. & van Zanden, J. L. (n.d.). Charting the 'Rise of the West'.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in Europe, A Long-Term Perspective from the Sixth to the Eighteenth Centuries. Available: <https://iisg.nl/bibliometrics/books500-1800.pdf>
- Burrows, S. (2021). *The French Book Trade in Enlightenment Europe II: Enlightenment BestSellers*.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 Burrows, S. & Falk, M. (2022). Digital Humanities. In: Frow, J. ed. *Oxford Encyclopedia of Literary Theory*.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 Curran, M. (2018). *The French Book Trade in Enlightenment Europe I: Selling Enlightenment*.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 Global Historical Bibliometrics Project (n.d.). Global Historical Bibliometrics. Available: <http://iisg.nl/bibliometrics/>
- Hérubel, J. P. V. M. (1999). Historical Bibliometrics: Its Purpose and Significance to the History of Disciplines [Review of Dictionary of Bibliometrics by V. Diodato; Bibliometrics: An Annotated Bibliography by M. K. Sellen]. *Libraries & Culture*, 34(4), 380-388.
- Hirsch, J. E. (2005). An index to quantify an individual's scientific research outpu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2(46), 16569-16572.
<http://doi.org/10.1073/pnas.0507655102>
- Lahti, L., Marjanen, J., Roivainen, H., & Tolonen, M. (2019). Bibliographic data science and the history of the book (c. 1500-1800).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7(1), 5-23.
<http://doi.org/10.1080/01639374.2018.1543747>
- Lee, J. & Lee, I. (2022). A big data analysis of K-Pop on social media: Focused on images, figures, and public attitude. *Rast Musicology Journal*, 10(2), 229-241.
<http://doi.org/10.12975/rastmd.20221024>
- Leonov, V. P. (2019). Distant reading as a strategy of an exact study of bibliography. *Scientific and Technical Libraries*, 2019(10), 56-67. <http://doi.org/10.33186/1027-3689-2019-10-56-67>
- Leonov, V. P. (2021). New horizons of book science and bibliography. *Scientific and Technical Libraries*, 2021(9), 115-128. <http://doi.org/10.33186/1027-3689-2021-9-115-128>
- Moretti, F. (2000).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1, 54-68. Available: <http://newleftreview.org/issues/i11/articles/franco-moretti-conjectures-on-world-literature>
- Moretti, F. (2014). "Operationalizing": or, the function of measurement in modern literary theory.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0(1), 3-19.

- <http://doi.org/10.15794/jell.2014.60.1.001>
- Narin, F. (1976). *Evaluative Bibliometrics: The Use of Publication and Citation Analysis in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Activity*. New Jersey: Computer Horizons, Inc.
- Park, O. Z. (1993). *A Bibliography of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or Translated into English*. Seoul: Hanshin Publishing.
- Park, Z. & Kim, Y. (2021). Organiz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Korean translations of German literature. Presentation at NKOS Consolidated Workshop 2021.
- Pölönen, J. & Hammarfelt, B. (2020). Historical bibliometrics using Google Scholar: The case of Roman law, 1727-2016. *Journal of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5(3), 18-32.
<http://doi.org/10.2478/jdis-2020-0024>
- Pym, A.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Unites Kingdom: St. Jerome.
<https://doi.org/10.4324/9781315760049>
- Salmi, H. (2021). *What is Digital History?* Massachusetts: Polity Press. 최용한 옮김(2024). *디지털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엘피.
- Tejasen, C. (2016). Historical bibliometric analysis: A case of th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1972-1976.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 1-6.
<https://doi.org/10.1002/pr2.2016.14505301108>
- Tolonen, M., Vimr, O., Király, P., & Panusková, C. (2023). *Bibliographical Data Science: From Catalogues to Research Data*. Version 1.0. Available:
<http://marketplace.sshopencloud.eu/workflow/tE2HiC>.
- Van Leeuwen, T. (2004). Descriptive versus Evaluative Bibliometrics. In Moed, H. F., Glänzel, W., & Schmoch, U. eds. *Handbook of Quantitativ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Dordrecht: Springer, 373-388. http://doi.org/10.1007/1-4020-2755-9_17
- Vimr, O. (2024). A computation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Czech literature in translation during the Cold War (1948-1989). *Translation Studies*, 1-19.
<http://doi.org/10.1080/14781700.2024.2421550>
- Zhou, X. & Sun, S. (2016). Bibliography-based quantitative translation history. *Perspectives*, 25(1), 98-119. <http://doi.org/10.1080/0907676X.2016.117710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i, Eun-Kyoung (2024). Exploring co-translator network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5(3), 177-197.
<http://doi.org/10.15749/jts.2024.25.3.007>
- Hong, Seok-Kyeong, Park, Sojeong, Park, Daemin, & Oh, Seungyun (2019). Geography of Hallyu studies: Analysis of academic discourse on Hallyu in international research. *Korea Journal*, 59(2), 111-143. <http://doi.org/10.25024/kj.2019.59.2.111>
- Institute for Germ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 Annual Report of the Research Project: Development of Database for Translation of German Literature into Korean and Translation Critique (Institute Programs in th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2nd Phase, 2nd Year.
- Jeon, Kihwa, Kim, Jiyeon, Yoo, Geonsu, Jeon, Se-jin, Chong, Ki In, Jung, Seong-hoon, & Chandler, S. (2023).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from a distance (2): Classical literature. *The Society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14, 79-118.
- Kim, Jeong-woo (2005). A premise for the description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 *Uimal*, 16, 139-161.
- Kim, Jin Won & Lee, Hanseul (2024). Bibliometric analysis on health information-related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411-438.
<http://doi.org/10.3743/KOSIM.2024.41.1.411>
- Kim, Yongsoo (2019). World literature and digital humanities methods: Research on Moretti in Korean academia. *The Journal of Criticism and Theory*, 24(3), 59-78.
<http://doi.org/10.19116/theory.2019.24.3.59>
- Kwon, Son Hyoungh & Park, Ziyoungh (2024). Development of Database for Translation of German Literature into Korean and Translation Critique. Paper presented at the 4th Networking Symposium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s,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Social Science.
- Lee, Jae Yun (2006). Some improvements on h-index: Measuring research outputs by cit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3), 167-186.
<http://doi.org/10.3743/KOSIM.2006.23.3.167>
- Lee, Jae Yun (2023). A study on scholarly communication trend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ies through author grou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2), 409-434. <http://doi.org/10.4275/KSLIS.2023.57.2.409>
- Lee, Jae Yun (2024).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ultidisciplinarity, interdisciplinarity, and citation indicators of journals in the KCI interdisciplinary research categ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4), 47-70.

<http://doi.org/10.3743/KOSIM.2024.41.4.047>

- Lee, Jae Yun, Kim, Pan Jun, Kang, DaeShin, Kim, Heejung, Yu, So-Young, & Lee, Woohyoung (2011). A bibliometric analysis on LED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2(3), 1-26. <https://doi.org/10.1633/JIM.2011.42.3.001>
- Lee, Jae-Yon & Jeong, Yoo Kyung (2020). Placing distant reading in Korea's literary sociology: A way to initiate a new method in censorship studies. *Daedong Munhwa Yeon'Gu*, 111, 295-337. <http://doi.org/10.18219/ddmh.111.202009.295>
- Lee, Ji Won & Lee, Sung Sook (2024). A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in the overseas cataloging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367-387. <http://doi.org/10.3743/KOSIM.2024.41.1.367>
- Yoo, Geonsu, Kim, Bokyung, Kim, Jiyeon, Jeon, Se-jin, Chong, Ki In, Jung, Seong-hoon, & Chandler, S. (2023).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from a distance (1): Modern literatur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4(1), 7-42.
- Yoo, Yeong Jun & Lee, Jae Yun (2016).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Calvin Theological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4), 125-14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4.125>
- Yun, Seo-young (2023). Re-reading, close reading and distant reading of literary texts: Analysis of Robinson Crusoe(1719) and Foe(1986) through text min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68, 101-132.